

청소년기 내면화 문제 행동의 발달궤적 양상과 유형화 예측 변인*

Predictors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건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오 영 진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 영 희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ungdo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Young Jin Oh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Yeong Hee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 data came from 3,188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dolescents with a high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the first year showed a rapid decline in these behaviors over time, whereas for adolescents with a low level of these behaviors in the first year the decline was slow. The predictors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were related to individual variables, such as gender, self-esteem, self-control, stress, self-stigmatiz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The predictors of the pattern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ppeared to be related to individual variables.

주제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ce), 내면화 문제 행동(internalizing behavior), 발달궤적 양상 (developmental trajectories), 발달궤적 예측요인(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Corresponding Author : Yeo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2 Gaeshin-dong, Heungduk-gu, Cheongju-shi,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7 Fax: 82-43-260-2793
E-mail: enjoy@chungbuk.ac.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흔히 제 2의 탄생이라고도 불리며, 한 인간의 발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지적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환경이 옮겨 가면서 두 환경간의 교차된 영역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성적인 성숙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성세대와 여러 가지 갈등적 상황을 겪기도 하며, 기존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면서 혼란을 경험하는 등 인간의 전 생애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문제행동이 야기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청소년기 문제행동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집단화·저연령화 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소위 결손가족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가족 혹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상류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장영숙, 2002). 이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가족과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지점을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현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이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개인변인, 가족변인, 또래 및 학교변인으로 살펴보기 시작하였다(성영민, 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이다. 여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3; Dekovic, Wissink, & Meijer, 2004;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폭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민, 2005; 이근욱, 2005; Siyez, 2008). 개인변인 중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손미영, 김영희, 2009; Pratt & Cullen, 2000), 스트레스도 청소년의 우울성향(김유진, 2009; Daniels & Moos, 1990)이나 행동문제(한미현, 1993), 무력감, 정서불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송경아, 이양희, 2004)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낙인(入)(Matsueda, 1992), 우리나라의 입시

특성과 관련하여 학업성취감(김준호, 김선애, 1999)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관련하여 Jacob(1975)은 비행청소년 가족과 일반청소년 가족을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일반청소년의 가족에 비해 부모의 의견 불일치가 많고 자녀들에게 모순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김선애(1995)도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가족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고, 김윤희(1990)는 부부관계 등 가족관계를 잘 유지시켜 가족의 애정적 결속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야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가족변인들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기존연구는 부모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희, 이정미, 2002; 류경희, 2003; 이민식, 오경자, 2000; 이상정, 2009; 최순화, 2002),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한미현, 1993)과, 가족의 형태(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부모학대(Jonson-Reid & Barth, 2000; Widom, 2000), 부모감독(Galambos, Baker, & Almeida, 2003; Marsh, 2007), 부모애착(신희경, 2006; McEvoy & Welker, 2000)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족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또래 및 학교변인에 따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탈친구와의 교제(이성식, 2007; 정익중, 2006; Scaramella, Conger, Spoth, & Simons, 2002)와 또래애착(박현수, 2008; Beam, Gil-Rivas, Greeberger, & Chen, 2002)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또래관계 이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학교환경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대인관계로 지적되고 있는 교사애착이 보고되고 있다(김희수, 2004; Ryan, Stiller, & Lynch, 1994).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 주었지만, 횡단연구들로 이루어져 특정시점에서 상이한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과 변인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Jones와 Forehand(2003)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한다는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유용한 함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즉, 문제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지 않고 점차 소멸되거나 특정시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은 확보되기 힘들 것이다(이상균, 2008). 그러나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것이라면 청소년에게 최적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전략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이상균, 2008 재인용).

따라서 발달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달 궤적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이러한 양상에 개인차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발달궤적의 초기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존재한다면 개인차를 고려한 차등적인 개입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개입 전략을 모색할 수 있고, 발달궤적 예측변인을 밝혀낸다면 이를 표적으로 하는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행동의 발생을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0).

이와 같은 유용한 함의로 인하여 외국의 경우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평균적인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Dekker 외(2007)에 의하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감소하거나(Karriker-Jaffe, 2008), 증가하거나(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양상(Bongers, Koot, Ende, & Verhulst, 2003)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행동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질과 가족환경(Leve, Kim, & Pears, 2005), 부모양육(Scaramella, 1999), 부모애착(Marsh, 2007), 부모감독(Galambos et al., 2003), 일탈친구와의 교제 정도(Scaramella et al., 2002), 또래집단의 따돌림과 싸움(Espelage, Holt, & Henkel, 2003) 등이 탐색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2 패널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이주리, 2008)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외현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기, 홍세희, 2007). 정소희(2007, 2009)의 연구에서는 중2 패널 3차년도 분석결과 청소년의 비행이 평균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5차년도 재분석한 결과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의 2차곡선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자아나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 부모학력, 가정형태, 가구소득, 부부갈등, 자녀학대, 부모애착 등의 가족변인, 비행친구 수, 또래애착, 학교유대, 교사애착 등의 또래 및 학교변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 2007; 이상균, 2008; 이성식, 전신현, 2009; 정소희, 2009). 이를 통해 전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확인하였으나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밝히지는 못하였다(정익중, 200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 내 질적으로 차별화된 발달궤적이나 대상별로 상이한 관계를 밝히는 데 장점이 있는(정익중, 2007; Chung, Nagin, Hawkins, & Hill, 2001)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양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무엇인지, 또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을 규명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의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4: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중2 패널 자료 중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자료가 누락된 1차년도를 제외하고,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청소년 3,188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적 조사된 4개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내면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

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등의 ‘불안·우울·자살충동’ 총 6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예측변인

(1) 개인변인

① 성별

성별은 남학생이 1, 여학생이 2로 코딩되어 있는 원자료를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여학생은 0, 남학생은 1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②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추출한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의 총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뒤의 3문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므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③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등의 총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6문항은 자기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므로 모두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④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총 1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⑤ 자아낙인

자아낙인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 2문항과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2문항으로 총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낙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⑥ 학업성취감

학업성취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다음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의 지난 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각 과목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5점(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학업성취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가족변인

① 빈곤여부

빈곤여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의 부모(보호자) 대상 조사내용 중 ‘부모와의 동거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4년 최저생계비(1인가구: 368,226원, 2인가구: 609,842원, 3인가구: 838,797, 4인가구: 1,055,090원, 5인가구: 1,199,637원, 6인가구: 1,353,680원)’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즉, 월평균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이면 빈곤가구로, 1 이상이면 비빈곤가구로 조작화하여 사용하였다.

② 가족형태

가족형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의 부모(보호자) 대상 조사내용 중 ‘부모와의 가족구성형태’에서 청소년이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재혼가족(친부양모나 양부친모가족)의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2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③ 부모간의 갈등

부모간의 갈등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등의 ‘부모간의 갈등’ 총 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의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④ 부모학대

부모학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등의 ‘부모학대’ 총 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학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⑤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의 총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⑥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총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또래 및 학교변인

①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근신·정학·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의 유무”, “친구들 중에서 경찰서에 잡

혀간 적이 있는 친구의 유무”, “친구들 중 술마시기 행동을 한 친구의 유무”, “친구들 중 담배피우기 행동을 한 친구의 유무”, “친구들 중 무단결석 행동을 한 친구의 유무”, “친구들 중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행동을 한 친구의 유무”, “친구들 중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뺏뜯기) 행동을 한 친구의 유무”, “친구들 중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등의 총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문항의 친구유무를 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②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등의 총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③ 교사에착

교사에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애에 선생님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의 총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에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중학교 3학년)부터 5차년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패널자료 중에서 해외유학, 이민, 장기결석, 퇴학이나 가출 후 연락두절, 장기입원, 요양, 소년원 입소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청소년과 거절, 장기부재, 대리응답 적발,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 취업, 약속을 계속 어기기 등의 조사실패 청소년의 발생으로 인한 사례와 문항에서의 불완전한 자료를 보완해서 처리하기 위해 SAS 9.13에서 제공하는 PROC MI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자료 결측치 처리방법은 m번의 삽입을 통해 m개의 가상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다중삽입법(Multiple Imputation: MI)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계적 양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발달계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무엇 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5.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

〈표 1〉 청소년의 문제행동 변인별 신뢰도

변인	신뢰도(Cronbach's α)					
	2차년도 (2004년)	3차년도 (2005년)	4차년도 (2006년)	5차년도 (2007년)		
종속 청소년 내면화 문제행동	.82	.83	.83	.84		
개인 변인	자아존중감	.74	.75	.76	.77	
	자기통제력	.69	.69	.68	.69	
	스트레스	.91	.89	.89	.90	
	자아낙인	.92	.92	.92	.93	
독립변인	학업성취감	.82	.83	.83	.84	
	가족 변인	부모간의갈등	.81	.69	.81	.83
		부모학대	.84	.79	.84	.84
		부모애착	.88	.88	.89	.90
부모감독	.87	.89	.88	.89		
또래 및 학교 변인	일탈친구	.92	.83	.85	.84	
	또래애착	.84	.84	.83	.84	
	교사애착	.73	.74	.78	.80	

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분석하였고,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을 규명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의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SAS 9.13 프로그램에서 PROC TRAJ 매크로를 이용하여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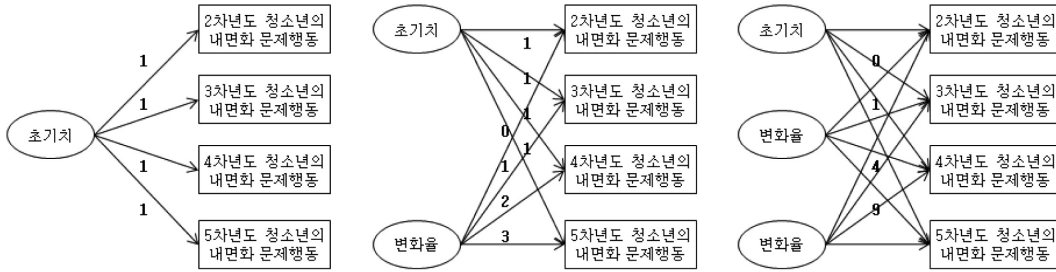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2.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양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중학교 3학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계 (명, %)	변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계 (명, %)	
성별	남학생	1,725	50.0	3,449 (100.0)	부직업	의회의원·고위임원 및 관리자	168	5.0	3,365 (100.0)	
	여학생	1,725	50.0			전문가	255	7.6		
	부학력	무학	9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62	1.8		
초등학교		120	3.6	사무종사자		781	23.2			
중학교		274	8.1	서비스종사자		205	6.1			
고등학교		1,481	43.8	판매종사자		494	14.7			
대학교		1260	37.3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32	3.9			
모학력	대학원	236	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83	14.4	3,394 (100.0)		
	무학	23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15	15.3			
	초등학교	126	3.8	단순노무종사자		115	3.4			
	중학교	428	12.8	군인	51	1.5				
	고등학교	1942	57.8	기타	28	0.8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교	781	23.2	무직	76	2.3	의회의원·고위임원 및 관리자	34	1.0	3,449 (100.0)
	대학원	57	1.6	전문가	159	4.7				
	100만원 이하	308	8.9	기술공 및 준전문가	41	1.2				
	100~200만원	1042	30.2	사무종사자	232	6.8				
	200~300만원	935	27.1	서비스종사자	357	10.5				
	300~400만원	454	13.2	판매종사자	566	16.7				
가족 구성 형태	400~500만원	293	8.5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34	1.0	3,444 (100.0)			
	500만원 이상	417	1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3	1.0				
	양친부모	3203	93.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2	5.7				
	한부모	188	5.5	단순노무종사자	43	1.3				
재혼부모	26	0.7	군인/기타	6	0.1	전업주부	1,697	50.0		
	부모없음	27	0.8							



〈그림 1〉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잠재성장모형

〈표 3〉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통계치

모형	χ^2	df	TLI	RMSEA
모형 1: 무변화모형	95.462***	8	0.973	0.056
모형 2: 선형변화모형	19.609**	5	0.993	0.029
모형 3: 이차곡선변화모형	3.664	1	0.993	0.028

** $p < .01$. *** $p < .001$

〈표 4〉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미지수	평균	표준오차	변량	표준오차
초기치 (Intercept)	2.700***	0.013	0.273***	0.016
변화율 (Slope)	-0.024***	0.005	0.019***	0.003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258***	

*** $p < .001$

(2004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2007년)까지 4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정하는 최적모형을 찾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 중 최종적인 모형을 채택하기 위해서 모형 적합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최종적인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후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표 4〉,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 평균은 2,700, 초기치 변량은 0.27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가 청소년들 간에 상당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 평균은 -0.02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3학년(2004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2007년)까지 4년 동안 내면화 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의 변량도 0.0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이 청소년들 간에 상당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

준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부적(-.258)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감소속도가 빠르게(기울기가 낮게) 진행되고,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감소속도가 느리게(기울기가 높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첫째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의 감소속도가 빠른 반면, 첫째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의 감소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양상에 대한 예측변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투입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선형변화모형은

〈표 5〉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예측변인

변인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	변화율	
	R^2	.433	.092
개인 변인	성별	-.166***	-.025
	자아존중감	-.266***	.079*
	자기통제력	-.110***	.057
	스트레스	.425***	-.200***
	자아낙인	.080**	-.087
		.068**	-.030
가족 변인	빈곤	.001	-.023
	가족형태	-.013	.047
	부모간의 갈등	.033	-.012
	부모학대	-.004	.030
		-.012	.037
		.024	-.076
또래 및 학교변인	일탈친구교제정도	-.010	.022
	또래애착	.006	-.018
	교사애착	.026	-.051

$\chi^2 = 54.123$ ($df = 35$), $p = 0.021$, $TLI = 0.987$, $CFI = 0.993$, $RMSEA = 0.013$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 변량의 43.3%를,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 변량의 9.2%를 설명하고 있어 비교적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는 가족변인과 또래 및 학교변인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첫째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0.266)과 자기통제력(-0.110)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첫째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0.325), 자아낙인(0.080), 학업성취감(0.068)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낙인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감이 높을수록 첫째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정적인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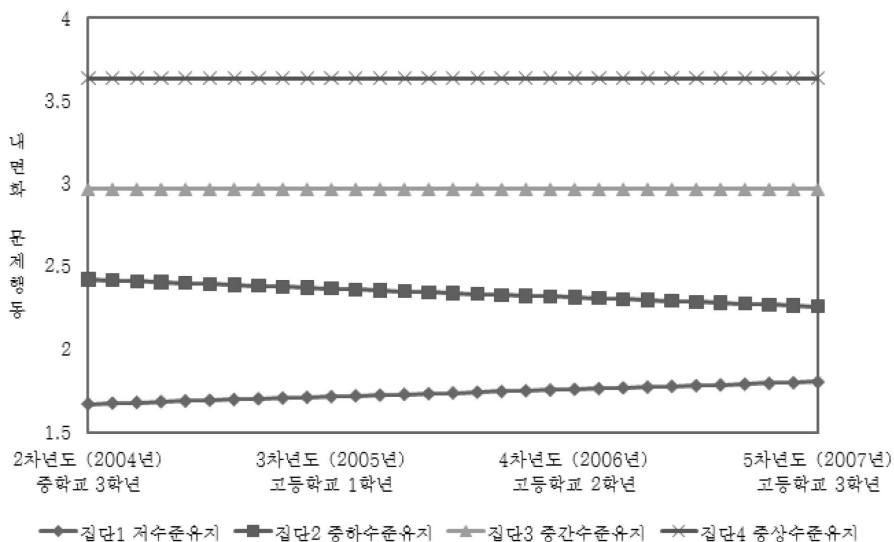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은 가족변인과 또래 및 학교변인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0.079)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 감소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0.200)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 감소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마찬가지로 변화율에서도 정적인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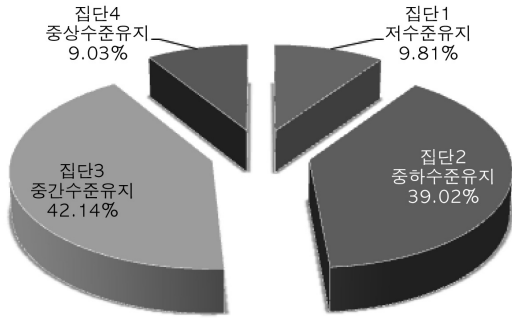
4.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계적 유형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에 있어서 적절한 잠재집단을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그에 따른 AIC(Ac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4개 일 때부터 AIC, BIC의 증가폭이 완만해졌다. 도출된 각 잠재집단의 변화형태는 <그림 2>와 같다. 잠재집단 유형은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가장 낮으면서 4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저수준유지집단(집단1),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수준이면서 4년 동안 조금씩 감소하는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중간수준이면서 4년 동안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4년 동안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으로 구분된다.

각 잠재집단별 구성은 <그림 3>과 같이 저수준유지집단(집단1)이 9.81%,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이 39.02%,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이 42.14%,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과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에 속한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의 81.16%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네 가지 유형 잠재집단의 변화형태



〈그림 3〉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네 가지 유형 잠재집단의 구성현황

5.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변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4개의 잠재집단모형에 독립변인을 추가하여 각 변인의 잠재집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 빈곤여부, 가족형태, 부모간의 갈등, 부모 학대, 부모애착, 부모감독 등의 가족변인,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또래애착, 교사애착 등의 또래 및 학교변인 중에서 잠재집단의 예측변인으로 유의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표 6), 첫째, 저수준유지집단(집단1)과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보다 저수준유지집단(집단1)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이 높을수록 저수준유지집단(집단1)보다 중

〈표 6〉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변인

기준집단	비교집	예측변인	계수	표준오차	T	
저수준 유지집단 (집단1)	중하수준 유지집단 (집단2)	개인 변인	성별	-0.649	0.235	-2.761**
			자아존중감	-0.713	0.191	-3.736***
			자기통제력	-0.193	0.169	-1.139
			스트레스	1.407	0.220	6.400***
			자아낙인	0.845	0.256	3.301**
			학업성취감	0.613	0.202	3.037**
	중간수준 유지집단 (집단3)	개인 변인	성별	-1.392	0.235	-5.928***
			자아존중감	-1.569	0.200	-7.857***
			자기통제력	-0.574	0.172	-3.331**
			스트레스	2.341	0.232	10.073***
			자아낙인	1.015	0.250	4.060***
			학업성취감	0.695	0.202	3.431**
중하수준 유지집단 (집단2)	중상수준 유지집단 (집단4)	개인 변인	성별	-2.430	0.327	-7.431***
			자아존중감	-2.592	0.281	-9.234***
			자기통제력	-0.601	0.232	-2.595*
			스트레스	3.761	0.307	12.265***
			자아낙인	0.865	0.288	3.001**
			학업성취감	0.793	0.267	2.968**
	중간수준 유지집단 (집단3)	개인 변인	성별	-0.743	0.136	-5.459***
			자아존중감	-0.856	0.128	-6.693***
			자기통제력	-0.381	0.108	-3.531***
			스트레스	0.933	0.130	7.180***
			자아낙인	0.171	0.104	1.649
			학업성취감	0.082	0.110	0.742
중간수준 유지집단 (집단3)	중상수준 유지집단 (집단4)	개인 변인	성별	-1.781	0.250	-7.126***
			자아존중감	-1.880	0.224	-8.382***
			자기통제력	-0.409	0.179	-2.289*
			스트레스	2.354	0.229	10.270***
			자아낙인	0.020	0.163	0.126
			학업성취감	0.180	0.191	0.946
	중상수준 유지집단 (집단4)	개인 변인	성별	-1.038	0.250	-4.151***
			자아존중감	-1.024	0.217	-4.720***
			자기통제력	-0.028	0.178	-0.157
			스트레스	1.421	0.215	6.622***
			자아낙인	-0.150	0.159	-0.943
			학업성취감	0.099	0.195	0.507

p < .01, *p < .001

하수준유지집단(집단2)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수준유지집단(집단1)과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보다 저수준유지집단(집단1)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이 높을수록 저수준유지집단(집단1)보다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수준유지집단(집단1)과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저수준유지집단(집단1)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이 높을수록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과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보다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보다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과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보다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보다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과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보다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하수준유지집단(집단2)보다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과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보다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간수준유지집단(집단3)보다 중상수준유지집단(집단4)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중학교 3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년 동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Garber et al., 2002; Leslie et al., 2005)과는 상이한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내면화 문제행동이 심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궤적 양상은 청소년들 간에 상당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한 발달궤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환경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주리, 2008). 또한 첫째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의 감소속도가 빠르고, 첫째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 감소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횡단연구에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살펴볼 때 개인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내면화 문제행동은 청소년들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각 양상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김수주(2002), 박진경과 도현심(2001), 하은혜, 오경자와 송동호(2003), 최인재(2007), Stattin과 Kerr(2000)의 횡단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박소영(2000), 윤진과 최정훈(1999)의 횡단연구결과,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양미진, 이은경과 이희우(2006),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Brooks, Harris, Thrall과 Woods(2001)의 횡단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성별에 따른 차이라고 본 횡단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성별 차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

고(노현숙, 2002), 불안수준이 높으며(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Rosenberg, 1978),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장애가 수반되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횡단연구(배미예, 이은희, 2009; 윤영신, 2007; 최윤정, 이시연, 2006; Hart, Hofmann, Edelstein, & Keller, 1997)와 본 연구결과는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을 초래하고(김춘자, 2000; 임영식, 한상철, 2000; 정경택, 2003), 자아낙인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여(Braithwaite, 1989) 우울이나 불안, 적개심, 복수심, 짜증,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 자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복종적 행동 등 정신병리와 정적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는 또한 낮은 학업성취감은 위협에 취약하게 하여 우울이나 자살충동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는 Vitaro 외(2001)의 횡단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공부압력, 인터넷 이탈경험, 자아낙인 등과 같은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초기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가족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또는 자신을 스스로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영향을 받음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초기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변인에 대한 개입과 강화에 초점을 둔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해준다.

셋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 뿐만 아니라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개인 변인만 영향을 미칠 뿐 가족변인과 또래 및 학교변인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e 외(2001)와 정익중(2006)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의 연속성(continuity) 효과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고 안정적이며 그 변화정도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초기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청소년 후기에 들어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V자형 변화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er, 1998). 이는 15~16세 전후로 가장 혼란을 겪고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따라서 청소년 초기·중기에 단기간의 교육이나 개입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지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박진아(2001)

와 이미리(2001)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의 부족이나 대처전략의 미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러한 발달적 스트레스와 함께 지나친 입시경쟁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부가된 학업 스트레스를 누적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내적·외적 부적응 증상을 서구 문화권의 청소년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Daniels & Lee, 2003). 따라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부압력 등의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 본 결과, 저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보이는 집단 1보다 중상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보이는 집단4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학업성취감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2~2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발달궤적을 보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알코올, 담배, 약물사용, 일탈행동의 참여와 보호요인으로 밝혀진 양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형태, 부모·또래·학교애착,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ostello et al.,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결과는 외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가족변인이나 또래 및 학교변인이 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Dekker 외(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변인은 가족변인이나 다른 환경변인에 영향을 받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변인이나 다른 환경적 변인이 어떻게 개인변인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 2패널은 잠재적 직업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 청소년의 성장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의 실태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변인들을 측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가 현저하게 적어 변인들의 속성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탄탄한 이론에 근거하여 문항을 추가하는 등 측정도구를 보다 강화하여 추적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규명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

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독립변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모형화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예측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변인과 또래 및 학교변인보다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개인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가족변인과 또래 및 학교변인의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잠심모형에서 매개효과를 밝혀내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여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의 전제조건인 시간적 순서를 확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 횡단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청소년패널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통하여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평균적인 변화추이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고, 준모수적 집단잠심모형 분석을 통해서도 질적으로 상이한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과 예측변인을 밝혀내고,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 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김동기, 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김신애(1995).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수주(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아영, 이명희, 전혜원, 이다솜, 임인혜(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능감 및 관계성과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학회지**, 21(4), 945-967

김영희, 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95-114.

김유진(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윤희(1990). 부부관계 · 부모-자녀의사소통 ·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준호, 김신애(1999). 공부와 청소년 비행. **청소년학연구**, 6(2), 123-143.

김춘자(2000). 청소년의 인생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적응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희수(2004).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현숙(2002).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박소영(2000).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진경,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박진아(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현수(2008). 청소년 비행과 친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배미예, 이은희(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1), 85-112.

성영민(2009).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과 문제행동: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미영, 김영희(2009).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학회지**, 27(5), 123-135.

송정아, 이양희(20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반사회적

- 행동과의 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회지**, **7**, 189-206.
- 신희경(2006).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와의 애착이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보완적 역할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4**(1), 117-141.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윤영신(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최정훈(1999).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대처행동양식. **한국심리학회지**, **18**, 16-35.
- 이경민(200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근욱(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양상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리(200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167-188.
- 이민식, 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4), 727-745.
- 이상균(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사회복지 연구**, **39**, 315-342
- 이상정(2009).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유아의 정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성식, 전신현(2009).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청소년패널 자료를 통한 비행이론들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2), 91-111.
- 이주리(2008).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51-60.
- 임영식, 한상철(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장영숙(2002).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51-162.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2**, 5-34.
- 정소희(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2), 31-64.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변인. **한국청소년연구**, **47**, 127-166.
- 지승희, 이은경,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 이소영(2002).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중단연구(II). **청소년상담연구 2002**, 1-175.
- 최순화(2002). 가정폭력이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정, 이시연(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89-113.
- 최인재(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6**(3), 611-628.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장애의 고위험 요인.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03**(1), 159-160.
-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Beam, M. R., Gil-Rivas, V., Greeberger, E., & Chen, C.(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5), 343-357.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 179-192.
- Braithwaite, J.(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oks, T. L., Harris, S. K., Thrall, J. S., & Woods, E. R.(2001). Associa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with mental health symptom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 240-246.
- Chung, I. J., Nagin, D. S., Hawkins, J. D., & Hill, K. G.(2001). A didactic example of mixture modeling applicable to the study of development in adolescent offend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7*, 197-218.
- Cole, D. A., Maxwell, S. E., Martinm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et al.(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Costello, D. M., Swendsen, J., Rose, T. S., & Dierker., L. C.(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173-183.
- Daniels, D. H., & Lee, S.(2003). Child development and classroom teach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educating teach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23), 495-526.
- Daniels, D., & Moos, R. H.(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68-289.
- Dekker, M. C., Ferdinand, R. F., van Lang, N. D. J., Bongers, I. L., van der Ende, J., & Verhulst, F. C.(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from early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and adult outc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7), 657-666.
- Dekovic, M., Wissink, I. B., & Meijer, A. M.(2004). The role of family and peer relations in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ur: Comparison of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27*, 497-514.
- Duncan, S. C., Duncan, T. E., & Strycker, L. A.(200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2*, 103-109.
- Espelage, D. L., Holt, M. K., & Henkel, R. R.(2003). Examination of peer group contextual effects on aggressive behavior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 205-220.
-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 179-204.
- Galambos, N. L., Baker, E. T., & Almeida, D. M.(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arber, J., Keiley, M. L., & Martin, N. C.(2002).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79-95.
-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95-205.
- Harter, S.(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ition)*. New York: Wiley Inc.
- Jacob, T.(1975).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and normal families: A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Review, 82*, 33-65.
- Jones, D. J., & Forehand, G.(2003). The stability of child problem behaviors: A longitudinal analysis of inner-city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2*(2), 215-227.
- Jonson-Reid, M., & Barth, R.(2000). From maltreatment report to juvenile incarceration: The role of child welfare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24*, 505-520.
- Karriker-Jaffe, K. J.(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27-1236.
- Kerr, M., & Stattin, H.(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Leslie, D. L., Hyoun, K. K., & Katherine, C. P.(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 Leve, L. D., Kim, H. K., & Pears, K. C.(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 Marsh, P.(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Matsueda, R.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577-1611.
- McEvoy, A., & Welker, R.(2000) Antisocial behavior, academic failure and school climate: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8(3), 130-140.
- Pratt, T. C., & Cullen, F. T.(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Rosenberg, F. T.(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F. T.(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4.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caramella, L. V.(1999). Parental protective influences and gender-specific increases i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2), 111-141.
- Scaramella, L. V., Conger, R. D., Spoth, R., & Simons, R. L.(2002). Evaluation of a social contextual model of delinquency: A cross-study replication. *Child Development*, 73, 175-195.
- Simons, K. J., Paternite, C. E., & Shore, C.(2001). Quality of parent/ 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 182-203.
- Siyez, D. M.(2008). Adolescent self-esteem, problem behavior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urke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7), 973-984.
- Vitaro, F., Larocque, D., Janosz, M., & Tremblay, R. E.(2001). Negative social experiences and dropping out of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312-319.
- Widom, C.(2000). *The cycle of violence*. Available online.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접 수 일 : 2010년 9월 9일

심사시작일 : 2010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14일